

문제 1

1. 일단 발문상에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관계를 제시했음은 이를 비교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행복 관계양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00자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를 기본적으로 쓰고, 서술하신 행복 만드는 방법, 행위 이런것들을 추가적으로 서술하면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지만 (논지가 맞는다면) 그렇지 못하고 추가적 내용들이 주가되면 발문 불이행으로 감점이 됩니다.
2. 현재 1문단에서는 3가지 기준을 통해 비교를 한다고 서술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가지 내용만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문단에서 제시한 기준들에 따른 답안서술이 아니기에 글의 논리성이 떨어집니다. 기준을 구분지었다면, 내용상으로도 명확히 구분되는 내용이 서술되어야 하지만 이 답안에서는 아닙니다.
3. 게다가 비교형식이라기보단 각 제시문을 각각 3문단에 나눠 요약한 느낌이 더 큼니다. 기출분석을 철저히 하셨다면, 기본적인 3자비교 형식으로 가/나다를 타인과 개인의 행복이 서로 영향을 받는지 여부로 구분한 뒤, 나/다를 서로 영향은 받지만 나에서는 서로 행복을 침해할 수 없고, 다에서는 집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비교 분기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요약의 느낌이 강합니다.
4. 그리고 3문단에서 개인들이 독립적이란 것도 논리적 오류입니다. 개인들은 집단 행복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독립적으로 볼 수 없어 논리적 비약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보다는 형식적으로 3자비교에 대한 기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답안입니다. 다른 기출문제를 통해 기본적인 3자비교 형식에 대한 숙달이 먼저 필요해보여요.

문제 2

1. 대응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근거도 충분하며 좋은 답안이라 체크 포인트가 없습니다.
2. 하지만 발문상에서 B와 C가운데 이상적인 것에 대해 논평하라고 했는데, 내용이 전무합니다. 반쪽짜리 답안으로 발문불이행입니다. 발문 요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답안은 합격이 힘듭니다.